

집 '중기' '획'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을 열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 바란다 \_ 전통

## 새로운 전통예술정책에 바라는 것과 우려되는 것

culture 'art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추세지만, 위원회의 진로와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현장에 중심을 둔 실질적인 예술행정의 확보와 제도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 전통예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세계적인 한국 예술가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경애  
- 음악평론가  
- 한양대학교 교수

2005년 8월 10일, 문화관광부 장관(정동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설립위원 11명을 다음과 같이 위촉하고 그 내용을 발표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중 전통예술분야에는 서울시립대 교수와 국립국악원 원장을 지낸바 있는 한명희 위원이 위촉되었다.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은 현장의 문화예술인들이 주체가 되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추세지만, 위원회의 진로와 역할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새롭게 정비된 예술위원회로의 전환과 함께 펼쳐지게 될 전통예술 지원 정책에 바라는 것과 우려되는 점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 장르 이기주의

예술위원회로의 전환으로 대두되는 가장 큰 우려는 장르 이기주의를 들 수 있다.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전통예술 등 각 예술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11인(문화일반 4인 포함)이 수립하는 정책에서 흔히 '밥 그릇 싸움'이라는 표현의 장르 이기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많은 문화계의 인사들이 우려하는 점이다.

### 위원회의 경질된 정책에 대한 예산 반영 문제

새로이 발족한 예술위원회는 현장 감각이 밝은 예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들이 주체가 되어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참신하고, 예술현장의 현안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바가 크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위원들이 수립한 좋은 정책에 대한 예산반영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을 많은 예술인들이 우려하고 있다. 지금의 예술위원회는 사업개발을 할 수 있지만 예산의 자율성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그들이 결정한 사업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 확보문제의 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장단기적인 기획 수립의 필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면서 시급한

문제는 새 예술정책을 바탕으로 지원과 진흥을 위한 장단기적인 기획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최소한 향후 20~30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원대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동시에 전통예술 전반을 아우르는 'master plan'을 구축해야 하고, 향후 20~30년 동안 흔들림이 없이 시행해갈 수 있는 원칙과 조직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볼 때 그리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 기초예술 지원 정책의 필요

전통예술분야는 그 어느 분야보다도 '기초예술' 지원에 대한 정책의 필요하다. 그동안 '순수예술'로 불려왔던 핵심 장르가 '기초예술'의 개념으로 재정립되면서, 그 중요성이 이미 널리 인식된 바 있다. 문예진흥원의 30년간의 지원사업의 핵심정책 역시 '순수(기초)예술'이었다는 점에서 볼 때, 전통예술 분야 역시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 분야가 바로 '기초예술'에 대한 지원이다.

### 소액다건과 다액집중 지원 등 정책의 세분화의 필요성

지원사업에 있어서 나누어주기 식은 이제 그만하고, 집중해서 육성할만한 정책사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통예술분야의 지원사업을 '소액다건'과 '다액소건집중' 지원으로 세분화하여 정책을 펼칠 것을 권한다. 적은 액수의 지원이라도 필요한 사업은 기존의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방식으로 계속해서 소액다건 원칙정책을 고수하고, 특별한 사업은 다액소건집중지원 사업으로 선정하여, 다년간 지속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전통예술계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우수한 공연문화를 만든 수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정책의 세분화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 신청한 사업만을 지원할 것인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것인가

전통예술 지원정책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신청한 사업만을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예술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통예술에서 특히 공연예술의 경우는 공모성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정책을 세우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진행할 것을 적극 권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통에

술 진흥을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추진하는 등, 소위원회는 다분히 진취적이며 유연한 자세로 활용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의 정책을 펼치기를 바란다.

### 자생력이 있는 단체와 신진단체

전통예술분야에 있어서 예술위원회 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증견 예술인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신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쪽으로 세울 것인가 하는 점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다. 향후 20~30년까지의 계획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마스터 플랜이 있다면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비전 속에서의 신진예술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그밖에 예술위원회에 바라는 점은 현장에 중심을 둔 실질적인 예술가와 예술행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에 대한 연구기능 강화를 통한 예술경쟁력의 확보, 그리고 예술가 및 창작활동을 중심으로 집중된 지원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다. 이러한 제도적인 정책이 수립될 때 전통예술에 대한 국제 경쟁력이 생길 것이며, 세계적인 한국 예술가의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